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 주간 -
광주 경영계

광주은행

◆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131호점 선정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광주·전남 지역의 아동센터 및 취약계층 가정의 학습 공간 개선을 위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131호점 선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은 2015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11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광주은행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다.

광주·전남 지역의 아동센터 및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학습 공간을 개선하고, 아동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사업이다. 올해에는 약 4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광주·전남 지역 아동센터 약 42개 시설에 개보수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지역사회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희망의 꽃을 피워나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지역 수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업무 협약 체결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및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은행을 포함한 4대 지방은행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 수출기업의 유동성 및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고병일 은행장은 “어려운 대내외 무역 여건 속에서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협약이 지역 경제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 올해도 '사랑의 S-BOX' 행사 진행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는 올해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사랑의 S-BOX'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지법인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관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 시작 이후 9년째 이어오고 있다.

사랑의 S-BOX 프로그램은 광주신세계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중심으로 광주시 서구 관내 5개 복지관이 협력해서 진행 중이다.

광주신세계가 기부한 금액으로 구매한 생필품과 간편 식사 제품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구성해 도움이 필요한 100개 가정에 매월 전달한다.

이동훈 대표이사는 “광주신세계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어려운 상황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청소년들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세계 첫 가죽 핸드백 특허 '델보' 리뉴얼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는 본관 2층에 전 세계 최초의 레더 하우스 델보(Delvaux)의 부티크 공간을 꾸며 리뉴얼 오픈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부티크에는 고객 간의 자연스러운 소통을 유도하는 독창적인 '바(Bar)' 공간을 마련했다. 매장 안쪽에는 프라이빗 한 VIP 라운지를 배치해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델보 부티크는 현대적이면서도 대담한 디자인과 장인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매혹적인 공간으로, 고객들에게 한 차원 높은 럭셔리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훈 대표이사는 "델보가 본관으로 이동해 새단장하면서 한층 더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며 "매장에서 델보의 아이코닉한 아이템을 직접 경험해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순환도로투자

◆ 특수장학회 장학금 1천만원 후원



광주순환도로투자(대표이사 이영훈)는 (재)특수장학회에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기탁된 장학금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소방공무원 자녀 50명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며, 광주순환도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특수장학회에 총 7천만원을 후원하였다.

이영훈 대표이사는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 보답하고자 장학금을 후원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순환도로(소태, 송암)는 고객의 안전 및 도로 편의성 증대, 사회공헌활동 등을 적극 시행하여 한국교통연구원(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에서 평가한 2024년 민자도로 운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를 획득하였으며, ISO 9001(품질), 14001(환경), 45001(안전보건) 인증을 취득하는 등 세계적인 ESG 평가기관인 GRESB에서도 4Star를 획득한 바 있다.

금호타이어

◆ 폭스바겐그룹 신차용 타이어 공급 확대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가 독일 완성차 업체 폭스바겐의 '티구안'과 쿠프라의 '테라마르'에 신차용 타이어(OE)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티구안과 테라마르에 공급되는 '엑스타 PS71 SUV'는 금호타이어의 스포츠형 라인업 엑스타(ECSTA) 브랜드의 대표 모델

로 고속주행에 특화된 프리미엄 스포츠 타이어다. 금호타이어는 티구안에 215/65 R17, 235/55 R18 2개 사이즈를, 테라마르에 235/55 R18 사이즈를 공급한다.

정일택 대표이사는 "SUV 시장의 대표모델인 티구안과 신흥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테라마르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금호타이어는 꾸준히 고성능, 고인치 타이어에 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신차용 타이어 공급 확대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독일 iF 본상 2개 수상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가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2025 (International Forum Design Award 2025)'에서 2개의 본상(winner)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독일 인터내셔널 포럼이 주관하는 iF 디자인 어워드는 1954년부터 시작되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는 72개국에서 약 1만 1000개의 출품작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했으

며, 132명의 국제 전문가 심사위원단이 △차별성 △기능성 △심미성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에 출품한 금호타이어의 '볼륨(Volume)'과 '오리가미(Origami)' 두 제품은 프로페셔널 콘셉트(Professional Concept)부문에서 본상을 받았다. 특히 수상 제품인 '볼륨(Volume)'과 '오리가미(Origami)'는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새로운 주행 경험을 제공하는 타이어로 다양한 지형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정일택 대표이사는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디자인의 혁신성과 기능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제품 연구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해양조

◆ 국립세종수목원서 매화원 개원식 개최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매화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매화원은 보해양조가 국립세종수목원의 전통 식물 보전 및 활용 사업에 동참해 해남 보해매실농원의 매화나무를 기증한 것으로 조성됐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수십 년간 매화나무를 정성스럽게 키워온 보해매실농원의 전문 노하우

를 전수받아 지난해 10월 성공적으로 이식을 완료했다. 오랜 세월 정성껏 가꾸온 매화나무들이 이번 협력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립세종수목원에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보해양조는 국립세종수목원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매화원의 유지 관리와 전통 식물 자원 보전의 홍보에 힘쓸 계획이다.

임지선 대표이사는 "보해양조는 해남 매실농원을 운영하며 최상품 매실을 생산해 대한민국 대표 매실주 '매취순'을 만들어왔다"며 "이번에 해남 매실농원의 매화나무를 이식해 매화원을 조성함으로써 전통 식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 국내 최초 무안경 3D 모니터 출시



삼성전자는 2025년형 게이밍·고해상도 모니터 신제품을 선보이며 프리미엄 모니터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제품은 ▲ 3D 신기술을 탑재한 '오디세이 3D' ▲ 27형 크기에 4K·240Hz를 지원하는 '오디세이 OLED G8' ▲ 전문가용 대화면 모니터 37형 '뷰피니티 S8' 등이다.

'오디세이 3D'는 국내 최초 무안경 3차원 경험을 제공하는 3D 게이밍 모니터다.

패널 전면에 렌티큘러 렌즈를 적용했으며, 'AI 3D 영상 변환' 기능을 통해 일반 2D 영상을 입체인 3D 콘텐츠로 전환해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025년형 게이밍·고해상도 모니터 신제품은 업계를 선도하는 혁신 기술과 다양한 옵션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넓혔다"고 강조했다.

한전MCS

◆ '2060 고독사예방 전력 매니저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한전MCS(사장 정성진)는 울주군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고독사 예방을 위한 '2060 고독사 예방 전력 매니저 서비스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2060 전력 매니저 서비스 사업'은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청년·중장년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가구에 IoT-LED를 설치해 전등 사용 데이터를 수집하며 CCTV나 노출 센서 없이도 생활 반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실시간으로 이상 징후를 감지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성진 사장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위기가구의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적극 앞장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전KDN

◆ LS일렉트릭과 에너지 신사업 협력 업무협약 체결



한전KDN(사장 박상형)과 LS일렉트릭(대표 구자균)이 서울 LS용산타워 컨퍼런스룸에서 '에너지ICT 협업 및 국내·외 사업 동반 진출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박상형 한전KDN 사장과 김종우 LS일렉트릭 사장을 비롯한 양사 주요 관

계자들이 참석해 에너지 산업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에는 ▲에너지ICT, 전력계통 제어·운영 관련 국내·외 사업 발굴 ▲탄소중립 및 분산 에너지법 관련 에너지 신사업 모델 발굴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에너지 보안기술 개발 ▲국내·외 거점 활용 에너지 신기술 실증 및 사업화 추진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사업 분야 상호 협력을 담고 있다.

협약에 참석한 양사 대표는 "한전KDN과 LS일렉트릭은 2005년 한국형 에너지관리시스템(K-EMS)과 2011년 차세대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구축하는 등 오랜 인연이 있다"면서 "양사가 에너지ICT, 전력계통 솔루션 및 전력 보안 등 전력ICT 전 분야에서 핵심역량을 협업해 전력 그리드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전KPS

◆ 한빛원전 지역주민 초청 청렴문화제 개최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인근 직원 복지관에서 지역주민을 초청한 가운데 '청렴사이렌 문화제(영광편)'를 실시했다.

이번 청렴문화제는 직무상 갑질 금지 관련 규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청

렴교육을 정형화된 전달식 강의에서 벗어나 흥미로운 뮤지컬 형식으로 전달하면서 참석자들의 이해도와 공감대를 높였다.

행사에는 한전KPS 이성규 상임감사를 비롯한 한빛사업처(소) 소속 직원과 함께 영광경찰서 경찰가족과 지역 주민들이 동참해 청렴 실천 의지를 함께 다졌다.

호반그룹

◆ 최대 1억원 지원... '2025 호반 넥스트 스타트업공모전'



호반그룹이 중증 환아 지원을 위해 연세대학교 의료원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호반그룹은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로드맵의 일환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증·희귀난치성 환아를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 기부금 3000만원을 포

함한 총 5000만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환자의 입원비, 약제비, 간병비와 환자 가족의 생계비, 치료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소아암 등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는 환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호반그룹은 도움이 필요한 의료 환경에 깊이 관심을 갖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에너지

◆ 2025 ESG 로드맵 수립



해양에너지(대표이사 정희)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열고, 2025년 사회공헌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나주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제15차 ESG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들어 처음 열린 ESG위

원회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핵심 계획과 실천 전략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회에서는 △2025년 ESG위원회 운영계획 △2025년 사회공헌활동 추진계획 심의 및 의결 △WHSE(안전·보건·환경·에너지) 실적 및 향후 계획 △회사 발전방향에 대한 위원들의 제안 및 토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희 대표이사는 "ESG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내부 경영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해피니스CC

◆ “명품 골프장 걸맞은 회원 위상·권의 보호에 최선”



해피니스CC (대표이사 윤오중)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욕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밝혔다.

해피니스 골프장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등 유명 골프대회를 열어 프로선수들 사이에서 유명하다고 했다. 특히 골프 마니아들 사이에 코스 레이아웃이 탁월하고 최첨단

시스템으로 코스와 그린을 잘 관리한다고 알려져 인지도가 매우 높다고 자랑했다.

“전국적으로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인기 높은 골프장으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해피니스CC 역사와 전통에 걸맞은 명문 골프장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더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해피니스CC 클럽하우스는 유럽풍의 고급스러운 시설이 돋보인다. 이에 대해 그는 “이곳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레스토랑의 음식은 맛의 고장인 전라도를 대표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전남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들을 다양한 패키지 상품으로 담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최수용 팀장 ▶ e-mail: gjef3425@naver.com

<제1679회 금요조찬포럼>

트럼프 2.0 시대 한국 여파

(김병연 애널리스트)

1679회 금요조찬포럼은 김병연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를 초청하여 「트럼프 2기 정책의 한국 여파」 주제와 「전남지역 자동차 관련 회사의 영향」을 부제로 강연했습니다.

“트럼프 관세는 수출 낙폭 심화 요인”, “트럼프 쇼크는 부양책 강화 요인”이라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2기는 취임 이후 정책 및 행정명령으로 강경 외교, 이민자 추방, 긴축적 정부 지출, 규제 완화, 투자 확대 등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보수주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멕시코, 캐나다 관세가 첫 번째인 이유는 피상적으로 26년 7월 예정된 USMCA 재협상에 유리한 입지를 점령하고 협상을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최대한 줄이고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한국 가전, 자동차, 차부품, 철강 공장의 미국 이전을 야기하며, 한국 대내 설비 투자 정체가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는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나, 해외 공장 생산분을 완벽하게 대체할 순 없다”며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대응은 대부분 소비자 부담 전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내 자동차 ASP 상승과 수요량 감소로 이어지고, ASP 20% 상승, 판매량 10%감소, 환율 2% 상승 가정을 했을 때의 시나리오” 라고 강연을 마무리 했습니다.



1. 경제동향

◆ 경총, 「2024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 발표 (3.16)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3월 16일 발표한 「2024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상용근로자 연 임금총액 인상률은 지난해(2.8%)보다 소폭 상승한 2.9%였으며, 시간당 임금 인상률은 이보다 높은 3.5%로 분석
- ① (연 임금총액) 2024년 상용근로자 연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 4,917만원, 전년 대비 136만원(2.9%) 인상, 2020년 이후 최근 4년 간 695만원(16.5%) 인상
 - 특별급여가 반등('23년 - 2.9% → '24년 0.4%)하면서 2024년 연 임금총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23년 2.8% → '24년 2.9%)
- ② (사업체 규모)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연 임금총액, 처음으로 초과급여를 제외하고도 7천만원 넘어
 - 2024년 300인 이상 연 임금총액 7,121만원(전년 대비 2.2%↑), 300인 미만 연 임금총액 4,427만원(3.0%↑)
 - 2023~24년 300인 미만 임금 인상률은 300인 이상보다 높았으며, 이로 인해 300인 이상 대비 300인 미만 사업체 임금수준은 2년 연속 소폭 상승 [('22)61.5% → ('23)61.7% → ('24)62.2%]
- ③ (업종) 2024년 전기·가스·증기업 연 임금총액 8,870만원으로 가장 높아, 5년 만에 금융·보험업(8,860만원) 앞질러
- ④ (시간당 임금) 근로시간을 반영한 2024년 상용근로자 시간당 임금은 26,505원으로 2023년 25,604원 대비 3.5% 인상
 - 2011년 이후 누적 시간당 임금 인상률은 71.1%로 연 임금총액 인상률 54.4%보다 높고, 물가상승률(27.1%)의 2.6배에 달해
 - 임금총액 인상률은 우리 실근로시간의 급격한 감소를 반영하지 않아 임금 인상률 과소계상, 2011년 이후 시간당 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았던 적 없어

◆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동참 안내

○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5개 단체와 정부는 지난 3월 13일 민·관 합동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협약을 체결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 동 캠페인은 다음달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민·관이 함께 외식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이 적극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민간 협·단체는 소상공인 점포들이 국민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는 내용 포함.

○ 이에 우리 협회는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에 회원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기업 여건에 맞는 임직원 연차휴가 사용 촉진, 우리 농축수산물 구매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적극 동참해 주길 요청

※ 내수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 예시

- ▶ (선구매·선결제) 생산활동 등 경영에 필요한 물품을 선구매하거나, 인근 식당 등에 선결제를 통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와 영세·소상공인을 지원
- ▶ (연차휴가 적극 활용 권장)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 노력, 지역 축제·이벤트를 사내에 적극 홍보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활용이 국내 여행 활성화와 지역 소비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 ▶ (우리 농축수산물 구매, 상품권 지급 등 노력) 협력기업이나 사내 직원들에게 선물 제공 시 우리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지역특산품 등을 우선 고려
- ▶ (기타) 이외에도 개별기업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통해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노력

◆ 기획재정부, 「OECD 3월 중간 경제전망 발표」 보도 (3.17)

○ OECD가 3월 17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경제활동 지표들은 글로벌 성장 전망이 완만해질 것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무역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지속될 경우 글로벌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고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평가.

-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2024년 3.2%에서 2025년 3.1%, 2026년 3.0%로 점점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 세계경제(G20 기준)의 물가상승률은 2025년 3.8%, 2026년 3.2%로 전망

※ (성장률) '25년은 지난 12월 전망치(3.3%) 대비 0.2%p 하향 조정, '26년은 12월 전망치(3.3%) 대비 0.3%p 하향 조정 (물가상승률) '25년은 지난 12월 전망치(3.5%) 대비 0.3%p 상향 조정, '26년은 12월 전망치(2.9%) 대비 0.3%p 상향 조정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25년 1.5%, 2026년 2.2%로 전망했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5년 1.9%, 2026년 2.1%로 전망.

※ (성장률) '25년은 지난 12월 전망치(2.1%) 대비 0.6%p 하향 조정, '26년은 0.1%p 상향 조정 (물가상승률) '25년은 지난 12월 전망치(1.8%) 대비 0.1%p 상향 조정, '26년은 0.1%p 상향 조정

- 최근 무역장벽 확대 및 지정학·정책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주요국의 2025년 성장률 전망치가 2024년 12월 전망치에 비해 전반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한국의 2025년 성장률 전망치도 2024년 12월 전망치에 비해 낮아짐.

- OECD는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글로벌 경제의 분절화 심화,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등을 지적했으며, 상방요인으로 관세 장벽 인하를 위한 합의 등을 제시

- 정책권고 사항으로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중앙은행이 높은 불확실성과 무역비용 상승 가능성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정부가 미래의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규율의 필요성을 강조. 또한, 글로벌 무역 체계 내에서 우려 사항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 경쟁 촉진을 위한 구조 개혁, 인공지능 기술 확산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도 권고.

◆ 기획재정부, 「2024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 발표 (3.14)

- 2024년 해외직접투자액(국내→해외)은 639.5억달러(총투자액 기준)로 전년(651.5억달러) 대비 1.8% 감소
 - ※ 최근 5년('20~'24) 해외직접투자액 추이(억달러): 582.1('20)→ 769.2('21)→ 817.0('22)→ 651.5('23)→ 639.5('24)
 - (업종별) 금융·보험업(273.9억달러), 제조업(161.7억달러), 부동산업(56.0억달러), 광업(39.0억달러), 정보통신업(30.6억달러) 순
 - (국가별) 미국(220.8억달러), 케이만제도(66.3억달러), 룩셈부르크(59.9억달러), 캐나다(37.9억달러), 싱가포르(26.9억달러) 순
 - ※ '24년 중국 투자(18.1억달러)는 중국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4.0% 감소하여 '23년(78.1%)에 이어 감소세 지속. 중국은 '23년에 이어 '24년에도 우리나라의 상위 5개 투자대상국에서 제외됨.
- 해외직접투자액에서 회수금액을 차감한 순투자액은 2024년 466.1억달러로 전년(519.8억달러) 대비 10.4% 감소
 - * 순투자액 = 총투자액 - 투자회수액(지분 매각, 대부투자 회수, 청산)

◆ 한국은행, 「2025년 2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 발표 (3.14)

- 2025년 2월 수출물가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내리며 전월대비 0.6% 하락(전년동월대비 6.3% 상승) 원/달러 평균환율(원): 1,455.79('25.1월) → 1,445.56('25.2월) [전월대비 0.7% 하락]
 - ※ 최근 수출물가 상승률 추이(전월대비): 1.4('24.10)→ 1.6(11)→ 2.3(12)→ 1.3('25.1)→ 0.6(2) 수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24년 1월(3.3%) 이후 14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 ▶ 최근 수출물가 상승률 추이(전년동월대비): 1.7('24.10)→ 7.0(11)→ 10.5(12)→ 8.6('25.1)→ 6.3(2)
 - (농림수산물) 전월대비 0.4% 하락(전년동월대비 2.6% 상승)
 - (공산품) 석탄 및 석유제품,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5% 하락(전년동월대비 6.4% 상승)

- 2025년 2월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8% 하락(전년동월대비 4.6% 상승) 두바이유(월평균, 달러/bbl): 80.41('25.1월)→77.92('25.2월) [전월대비 3.1% 하락]
 - ※ 최근 수입물가 상승률 추이(전월대비): 2.1('24.10)→0.9(11)→2.3(12)→2.2('25.1)→0.8(2) 수입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기준으로 '24년 11월(2.8%)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 ▶ 최근 수입물가 상승률 추이(전년동월대비): 2.5('24.10)→2.8(11)→6.8(12)→6.5('25.1)→4.6(2)
- (원재료)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2.3% 하락(전년동월대비 1.8% 상승)
- (중간재)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내리며 전월대비 0.2% 하락(전년동월대비 6.5% 상승)
- (자본재 및 소비재) 자본재는 전월대비 0.3% 상승했고, 소비재는 전월대비 0.2% 하락 (자본재 전년동월대비 5.3% 상승, 소비재 4.5% 상승)

◆ 한국고용정보원,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3.17)

1.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3~2033)

-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는 2023년부터 2033년까지 24.8만명 증가하나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10 이하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
 - 경제활동인구는 전망 전기('23~'28년)에는 증가하나 후기('28~'33년)부터 감소가 예상되고, 고령층 비중 확대 등 구성효과로 인해 노동공급 제약은 더욱 심화될 전망.
 - ※ 경제활동인구 증감 전망(만명): ('03~'13) 306.5 ('13~'23) 309.5 ('23~'33) 24.8
- (취업자 수) 취업자 수는 2023년부터 2033년까지 31.2만명 증가하고, 노동공급 제약의 영향을 받아 전망 후기('28~'33년)에는 8.5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 ※ 취업자 증감 전망(만명): ('03~'13) 304.9 ('13~'23) 311.6 ('23~'33) 31.2
 - (산업별)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76.0만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고, 그 다음으로는 보건업(22.2만명), 공공행정(8.9만명), 출판업(6.9만명) 등 순. 온라인화·플랫폼화 등 산업구조 전환의 영향으로 소매업(26.4만명), 음식·주점업(10.5만명), 도매 및 상품중개업(10.3만명) 등은 감소할 전망

- (직업별) 고령화 영향으로 돌봄, 보건 및 개인서비스직(42.1만명), 보건·사회복지직(28.3만명)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디지털 전환 등 기술혁신의 영향으로 공학전문가(12.8만명), 정보통신전문가(12.3만명)에서 증가할 전망. 온라인화로 매장판매직(23.9만명)의 큰 폭 감소가 예상되며, 자동화로 장치·기계조작직(4.9만명)이 감소하고, 학령 인구 감소로 교육전문가(7.4만명) 등도 감소할 전망.

2. 추가 필요인력 전망

-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1.9%)를 달성하기 위해 2033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인력 규모는 82.1만명으로 전망(추가 필요 인력) 노동수요 기반 필요 인력 전망결과(2,954.9만명)
- 노동력 공급 제약 고려한 전망결과(2,872.8만명)

3. 시사점

- 2023년 15세이상 인구 중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30%를 넘어서게 되고, 노동공급 제약이 심화되며 2029년부터 취업자가 감소할 전망. 전망 후기('28~'33년)에는 추가 필요인력이 급증하고 산업전환과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만큼 체계적 대응이 필요.
- 향후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여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하고, 인력수요 변화가 분야별로 상이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어 업종·직종별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

2. 노사동향

◆ 노동계 정치투쟁 강화에 따른 현장혼란 증가 우려

- 한국노총은 김동명 위원장 단식농성(3. 8부터)과 도심집회(매일)를 지속하고 있고, 탄핵 심판 선고일에 맞춰 집회 예고
- 민주노총은 3. 20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 및 파면 결정을 압박하기 위한 3. 27 총파업·총력투쟁 결정
 - 민주노총은 3. 27 현재 파업이 진행중인 노조(지회) 중심의 투쟁과 농민단체 등 시민단체의 연대집회 예정
 - ※ 파업 집회는 3. 27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 예정(수도권은 서울집중)
 - 다만, 주요 대기업 노조가 쟁의권이 없고 지난 정기대의원대회 당시 3월 파업 추진 안건이 부결된 점에 비추어 금번 총파업·총력투쟁은 현안사업장 노조와 집행 간부가 참여 하는 집회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

◆ 올해 임단협은 통상임금 확대 및 노동계의 고율의 임금인상 요구로 난항 전망

- '24. 12. 19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노동계는 올해 고율의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임금을 둘러싼 임단협 난항 우려
 - ※ 협약임금인상률 추이: 3.0%(2020년), 3.6%(2021년), 4.7%(2022년), 4.2%(2023년), 3.6%(2024년)
 - 한국노총은 2. 12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2025년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7.3% 인상(월 고정임금 314,919원 인상)을 확정
 - ※ 한국노총 2025년 임금인상 요구안 산출방식: 경제성장률 전망치(2.0%)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8%) + 실질임금 보전분(2.0%) + 연대임금 조성분(1.5%)
 -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는 3. 19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2025년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을 전달하고 임금 요구안으로 총액 기준 7.1% 인상 제시

- 민주노총도 2025년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6.2% 인상(정액 256,000원 인상)제시

※ 민주노총 2025년 임금인상 요구안 산출방식 : 경제성장률 전망치 1.8%+물가상승률 전망치 1.8%+소득분배 개선분 1.6%+물가상승률 전망치와 생활물가지수 격차 보전 1.0%

MEMO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2025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광주경총 주요 회원서비스 (특전) 안내

✓ 금요조찬포럼 회원사 무료 참가

- 경제·경영 이슈 및 인문학 등 전문가 초빙 강연
- 회원사 CEO(임원), 기관단체장, 오피니언 리더 대상

✓ 각종 노동경제 교육 및 연수 무료 참가

- 중대재해 및 노동관계법 현안 등

✓ 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 및 청·장년층 인재 알선

- 광주뿌리산업구인난 개선, 청년성장직장적응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장년내일센터

✓ 기업 인사노무관리자협의회 참석

- 회원사 인사노무 담당자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인사노무관리 자료제공 (온·오프라인)

- 최신 노동경제 정보 제공, 도서 발간 배포

✓ 기업 입장 대변 및 경영계 창구 역할 활용

- 노동경제 관련 법·제도 국회 의정 활동 및 대정부 건의

✓ 자문위원 무료상담 활용

- 인사, 노무, 회계, 경영, 법무, 무역 분야

✓ 노동사건 해결 지원 및 노조파업대책 지원

-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관련 사건 지원

✓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노사협력·고용창출 유공자 포상 및 추천

✓ 회원 상호간 네트워크 구축 및 비즈니스 교류 지원

✓ 기타 회원기업 경영애로 해결 지원활동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2025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NO	사업명	지원대상	기업지원(금액)	문의(062)
1	광주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사업	광주 지역 뿌리산업 해당기업 및 재직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 채용기업 : 월 60만원씩(최대 6개월) • 근속지원금 : 1인 최대 240만원 • 공동이용시설 개선 : 기업당 최대 900만원 (자부담금 10% 이상) • 주거비(월세) : 월 30만원씩(최대 6개월) • 건강검진비 : 1인 최대 30만원(연 1회) 	716-3504
2	청년성장 직장 적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지역 소재 기업 (관리자 및 청년층 신입직원) - 관리자(직책,근속기간 제한없음) - 신입직원(최근 3년 내외 채용, 청년층: 만 15세~3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 및 신입직원 일체 교육지원 - 관리자: 리더십, 소통, 갈등관리 등 - 신입직원: 직장예절, 팀협업, 문서작성 등 * 회원사 맞춤형 교육 설계 및 자사교육 가능 	654-3427
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취업 애로청년 채용 기업 및 빈일자리 업종 내 우선지원 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업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 • 근로자 : 18, 24개월 재직 시 최대 480만 원 	716-3424
4	중장년 내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인 이하 중소기업 • 만 40세 이상 재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자 이전직 상담, 생애설계 등 기업별 무료 상담 	609-8964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경영자총협회 중장년내일센터

기업서비스

광주경영자총협회 중장년내일센터는 광주고용복지+센터와 광주광산고용복지+센터에 입주하여 중장년전담창구를 통해 만 40세이상 중장년 대상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서비스,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등 종합전직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서비스 01

고용노동부 포털사이트 '고용24' 구인 인증 및 채용대행 서비스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의 구인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고용24 기업회원 로그인 → 구인정보 등록 → 승인 기관 선택시 '중장년내일센터' → 광주 → 광주경영자총협회' 선택 (우측참고)
- 승인 후 적합자 알선 등 채용대행 서비스 제공

인증서비스 기관찾기

기관구분선택	시/도 선택	인증서비스 기관선택
<p>고용센터</p> <p>고용센터 지자체 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p>	<p>관할지역</p> <p>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p>	<p>인증서비스 기관</p> <p>(유관기관-중장년내일센터) (사)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 (유관기관-중장년내일센터) (사)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 광산</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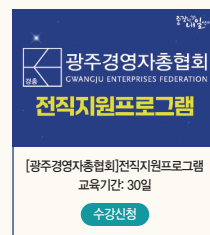
닫기 적용

기업서비스 02

퇴직예정자 대상 전직스쿨 프로그램 운영

재직 및 퇴직예정 근로자에게 퇴직의 충격을 완화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도록 지원

- 기업단위 대면프로그램 : 1일 4시간
- 경력자산정리, 중장년 취업시장 뽐내기, 다양하게 일하기, 경력대안 탐색하기 등
- 온라인(e-러닝) 교육 : www.elifeplan.or.kr(회원 가입) → 수강신청 → 전직지원(온라인) → [광주경영자총협회] 전직지원프로그램 수강신청 → 1~13 모듈 학습하기, 학습 후 설문 + 시험 완료하면 수료



기업서비스 03

재직자 대상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100세시대를 대비한 일중심의 경력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장년나침반 프로그램

- 기업단위 대면프로그램 : 1일 6시간(강의실, 시간, 모듈 구성은 기업사정에 따라 협의 가능)
- 생애경력설계 이해하기, 직업 가치관 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재무관리, 건강관리 등
- 다과, 점심, 기념품, 수료증 제공